

대만 섬유산업의 WTO가맹과 그 후의 전망 (I)

대만의 방척회(紡拓會)에서는 대만이 중국과 동시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 : 世界貿易機構)에 가맹(加盟)하게 될 경우 섬유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① 대만의 정치는 그동안 중국과의 국제적인 관계로 국제무대에서 많은 나라로부터 국교(國交)가 끊어지거나, 비공식적인 교류만을 유지하는 등 불편한 입장에 있었는데, 세계적인 국제기구인 WTO에 정식으로 가맹하게 되면, 중국과의 동시 가맹으로 비록 어색한 면도 없지 않으나, 공식적으로 WTO의 국제사회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무역이 자유화되고 모든 교역국에게 시장이 개방되므로, 그동안 받아오던 여러 차별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와의 교역(交易)에 있어서 최혜국대우(最惠國待遇)나 무역협회에서의 주도권, 쿼터에 관한 무역분쟁의 해결, 다른 나라들의 관세감면, 비관세장벽의 제거와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대만의 기업도 국제적인 룰(rule)에 따라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② 국제시장과 무역정책에 있어서 무역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 지금까지 제한을 받아오던 교역량이 자유롭게 된다.

그동안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해 오던 쿼터가 2005년부터 없어지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섬유제품이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주요 마켓으로부터 쇄도하게 될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들 수입국들은 앤티·덤핑세(anti-dumping稅)를 발동하거나, GATT 제19조의 세이프·가드(safe guard) 규정에 따라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쿼터 제한, 관세 인상 등에 의한 수입 제한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만의 기업들은 어떻게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나 품질에 관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며, 앤티·덤핑이나 세이프·가드 등의 문제를 풀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가 된다.

③ 대만의 경제는 WTO에의 가맹으로 관세가 내려가고, 수입수량, 수출보증금, 품질이나 공해 등과 같은 조항으로 수입을 억제하려는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이 제거되면 미국·유럽·일본 등의 수입국들은 대만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의 수입량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중국은 경제 발전에 따라 수출이 크게 증가하겠지만 또한 수입도 증가하여 전체 교역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된다. 수입이 증가하면 중국의 국내산업이 중국내 시장에서의 외국상품과의 경쟁이 치열해져 위협도 받게 되지만, 외국으로부터 자본이나 기술이 도입되고 중국의 산업이 경쟁에 의해 자극을 받아 기술이나 품질의 수준이 향상되므로 국제경쟁력이 강해질 것이다.

대만은 원래 수입관세가 아주 낮았으므로 WTO가맹 후에도 중국과 비교하면 그리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섬유제품의 품질이 향상되고,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면 대만은 국제시장의 경쟁에서 불리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중국의 섬유제품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가 대만의 섬유산업이 풀어야 할 중요과제이다.

④ 산업에 있어서 섬유무역을 자유화하게 되면 마켓에서의 경쟁은 더욱 심하게 된다. 대만을 비롯한 수출국들은 그동안 미국·유럽·일본 등 수입국들이 중요 수출국들에게 그간의 수출실적과 자국내의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해 주는 쿼터(quota)에 의하여 수입국 시장에서의 마켓·셰어(market share : 시장점유율)가 결정되었으므로, 수입국 시장에서의 경쟁은 어느 정도 과열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오직 경쟁력만으로 무역량이 결정되는 완전자유경쟁의 국제환경으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섬유산업과 같이 제품의 원가구성에서 인건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노동집약형 산업에서는 공임이 싼 나라일수록 생산원가가 낮게 되어 매우 유리한 조건에서 수출

이 가능하며, 품질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이면 수출량의 급증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수입국들의 생산시설 해외이전이 가속화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만에 남아서 생산활동을 계속하려면 상품의 부가가치(附加價值)가 높으며,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강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다른 여러 나라들도 상품의 경쟁력을 강하게 키우고 있으므로, 지역마다 가장 자랑할만한 사업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대만의 임금수준은 앞으로도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므로 수익률(收益率)이 낮은 상품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이나 형태로, 더욱 해외에서 생산하게 될 것이다. 상품의 경쟁력은 생산시설의 적정규모나 자동화, 상품의 품질이나 생산코스트, 단납기대응(短納期對應), 수요자에의 서비스 향상, IT나 SCM 등 하이테크화 경영, 글로벌한 사업경영 능력, 신상품·신기술의 개발 등으로 결정되므로, 극심한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이들에 주력하여야 한다.

1. 규제완화로 경제개혁

대만은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고전하고 있어, 2001년의 전국적인 생산, 소비, 투자, 재고 등의 경제활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GDP(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 지난 8월에는 실업률이 5% 수준으로 올라 과거 최고를 보이고 있다. 대만 경제는 세계적인 시대의 변천에 따라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2000년에 국민당(國民黨)이 민진당(民進黨)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생긴 경제적인 혼란과 미국 경기의 불황으로 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가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의 거품이 꺼지면서 성장이 둔화되자, 대만 경제 성장의 견인 역할을 해오던 IT관련 산업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새로 취임한 진충통(陳水扁 總統)은 곤경에 빠진 경제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경제발전자문회의 (經濟發展諮問會議 : 經發會)를 지난 7월에 만들었다. 경발회에서는 산업계, 학회 등의 중진 120명의 위원이 토의를 거듭한 결과 답신서(答申書)를 만들어 진충통에게 제출하였다. 진충통은 완전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부터 즉시 실시하기로 방침을 밝히고, 2주간 내에 추진계획을 구체화하도록 경발회(經發會)에 지시하였다.

답신에서는 이제까지의 중국대륙(中國大陸)에 대한 투자 정책을 크게 바꾸어 「대만우선(臺灣優先)」, 「글로벌화」, 서로 혜택을 주고 함께 득을 보자는 「호혜공익(互惠公益)」, 대륙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도 이등휘 전정권(李登輝 前政權)이 “급히 서두르지 말고 참을성 있게” 즉 “계급용인(戒急用忍)”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자”는 “적극개방, 유효관리(積極開放, 有效管理)”의 정책으로 바꾸고, 중국대륙에의 투자한도액 5천만불을 없애고, 통상, 통행, 통신(通商, 通行, 通信)의 3통을 적극 촉진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상신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국인 노동의 강화, 기업합병의 촉진, 재정적자의 해소, 예산의 균형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금융기관의 합병촉진, 노동시간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 등도 답신하였다

<다음호에 계속>